

성숙된 노사화합이 필요하다.



넥스타이어 대표이사·부회장

홍종만

최근 5년간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여러 면에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전체의 총량적 면에서 발전은 비약적인 수준으로 총 수출액의 경우 5년 전 1,600억 달러에서 올해 3,600억 달러를 넘길 태세여서 두 배가 훨씬 넘는 실적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개 기업들의 부채비율도 평균 100%를 밑돌고 있어 어느 선진국 보다 건전한 성적표를 보이고 있다.

국가 전반적인 분위기도 개별경제 주체들 간의 양극화의 문제는 있지만 안정기에 접어든 느낌이며, 이는 최근 종합주가지수의 최고치 갱신 등 지속되고 있는 여러 지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경제는 아무런 불안감이 없이 태평성대를 영원히 누릴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 현재 우리경제에서 우려되는 유일한 사안은 노사관계의 불안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숙된 노사관계 로드맵 필요

최근 모 대기업의 노사간 충돌 문제는 우리사회의 노사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TV 화면상으로 보이는 노사간 물리적, 폭력적인 충돌사태는 '노사문제는 한국사회의 고질병인가?' 라는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

노사간 불화로 인한 대기업 파업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협력업체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고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여파는 해당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경제 전체, 더 나아가 해외 수출시장의 국가 공신력의 문제로 까지 비화될 수도 있다.

원활한 노사관계의 전제는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구성원, 즉 경영자와 근로자들의 성실한 역할수행이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개별 기업의 기업구성원들이 이 같은 역할수행을 저버리고 한시적인 이익창기기에 급급하다면 노사간 갈등은 필연적이며, 그로 인해 그 기업의 정상가동은 불가능해 지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져 급기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구성원이 취한 순간적인 달콤한 열매는 기업구성원 전체에게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 운영에 있어 경영자는 근로자에 대해 가족처럼 아끼는 마음으로 작업환경 개

선과 복리후생 등에 힘을 기울이고, 근로자 또한 경영자의 경영 비전을 믿고 따르며 적극 협력한다면 참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와 더불어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어떤 기업들은 노조가 경영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큰 갈등을 보이고 있다. 한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때 이러한 갈등이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사용자는 명예퇴직신청 또는 부서 재배치 등을 통해 최소한의 희생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해 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지막지한 감원, 법의 교묘한 악용을 통한 노조에게로의 일방적 희생은 통하지 않는다.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회사 전체 구성원의 열성을 움직여 고용력을 창출하는 것, 즉 노시간 상생의 원리가 확실히 만들어져야만 노시간의 갈등은 최소화 되고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선진적인 노사관계의 로드맵이 적용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경영자와 근로자는 자기책임 다해야

노동시장의 성숙된 유연성은 아직 우리나라에선 사치스런 바램일까?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직업이 다양화된 선진국의 경우 정규직은 점차 감소하고 파트타임, 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의 고용형태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그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우리경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로 고심이 깊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 중이다. 우리 근로자 전체의 55% 정도가 비정규직 이다보니 쉬운 문제해결책이 보이질 않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기업 혼자 책임질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게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지듯, 근로자 개개인이 책임 있는 경제 주체임을 자각하고 문제의 해결 출발점을 자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하고 싶다. 아울러 자신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전체의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더 나아가 경영자와의 관계도 좋게 하여야 하며, 경영자도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근로자를 관리하고 노조와 의사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성숙된 노사관계로 진정한 선진국 만들자

한나라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척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수출액과 내수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젠 국가경제 전체의 질을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다. 성숙된 노사관계야말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척도중의 하나로 이를 통해 선진국으로의 입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치열한 노사문제를 경험하였을 것이다. 슬기로운 노사화합의 정신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된 성숙된 사례를 만들어 보자. 국가경쟁력은 다른 나라와의 차별화 된 우위의 경쟁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